

미꾸라지 도주에 그물망 단속 처방

경찰 작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5961건 적발 전년보다 168% ↑... 안전모 미착용·신호 위반 순 경찰 “도주 잇따라자 합동단속과 암행순찰 병행”

제주경찰이 지난 한 해 ‘이륜차 집
중단속’을 벌인 결과 5000건이 넘
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
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961건이 적발됐다. 전년
같은 기간 2219건에 비해 168.6%
늘어난 것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
이 2338건(39.2%)으로 가장 많았
고, 신호위반 1145건(19.2%), 보도
통행 791건(13.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35건(7.2%), 중앙선 침
범 264건(4.4%) 순이었다. 아울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123건, 번호판 미부착 운
행 30건, 미사용 신고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10건 등 총 187건에 대
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통보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는 445건으로 전년(327건)에 비해
36% 이상 증가했지만, 사망사고는
8명으로 전년(12명)에 비해 4명 줄
었다.
그동안 제주경찰은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미
꾸라지처럼 단속을 피해 도주하
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싸
이카 순찰팀, 유관기관 합동단속
팀을 구성한 후 ‘그물망식’ 단속을
펼쳤다. 또 암행순찰차까지 현장에

투입, 캠퍼 등으로 위반 행위를
체증한 뒤 사후 단속하는 방식도
실시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
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도민이 ‘도로 위 안전
지킴이’가 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2020
년 3만3297대에서 지난해 11월 기
준 3만4017대로 증가 추세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오미크론 하루 새 3명 감염 2명 해외·1명은 타지역 입도객... 누적 15명

6일 오후 5시 기준 10명 확진
제주지역에서 하루 새 오미크론 변
이 바이러스 확진자 3명이 추가 발
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5시
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4798명으로 집계됐
다. 이날 들어선 137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
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8명, 해
외입국자 2명 등이다.
이날 ‘제주시 보육시설 관련’ 집
단감염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면

서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
다. 또 ‘서귀포시 어린이집’ 관련 2
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으며 ‘서귀포시 초등
학교 2’ 관련 1명이 확진되면서 누
적 확진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해 도내 누적 확
진자가 15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 2명은 각각 네덜란
드와 미국에서 입도한 해외입국객
이며 1명은 타지역 입도객이다. 3
명 모두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
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양돈장 응접작업 중 화재 돈사 소실 1400만원 피해

양돈장에서 응접 부주의로 추정되
는 화재로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
가 발생했다.
6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1시33분쯤 제주시 한림읍
의 한 양돈장에서 돈사 외부에 약
취제거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접 작
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 약취제
거기와 돈사 외벽 일부가 소실되며
14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
분만에 모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김도영기자



해병대 방역 지원 해병대 제9여단이 6일 동부지역에서 조류독감 유입 등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어머니 개인정보 도용 카드발급 사용 4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수천만원을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7일 카
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이후 김씨는 발

급받은 카드로 2020년 4월 7일까지
총 466회에 걸쳐 약 1497만원 상당
의 물품을 구입했다. 김씨는 아울
러 2018년 8월 13일부터 2020년 3
월 25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4437
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
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를 도용
해 카드를 발급 받고,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이후 김씨는 발
송은범기자

제주 119신고 시간 당 24건

작년 21만여건 접수... “셋 중 한건 풀 단순 안내”

지난해 제주에서 접수된 119신고가
2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에서 접수된 119신
고는 총 21만3131건, 하루 평균으
로 따지면 584건이다. 최근 4년 간
119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21만

105건, 2019년 20만4704건, 2020년
19만6946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9신고 가운데 단순 안
내가 7만4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은 5만3499건, 구조 1만6615건,
화재 6348건 등이었다. 이 중 실제
출동으로 이어진 건수는 아직 수합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은 지난해 하
반기부터 ‘119신고 녹취록 분석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 민원인 응대요령(목소리 톤, 억
양 등) ▷신고부터 출동지령까지
평균 소요 시간 측정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평가해 119신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제주소방은 119신고자가 출동 소
방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119출동정보 알림서비스’를 지
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119의 시작
인 신고 접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며 “앞으로 119종합상황
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도민연대 한진그룹 앞 회견
제주도내 27개 단체가 모인 ‘제주
칼호텔 매각 중단’을 위한 도민연대
(이하 제주칼호텔연대)와 민주노
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서울 한진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한진그룹은 제주도민
무시하는 제주칼호텔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칼호텔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그룹은 오랜 기간 제주
도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와 항공

이동권 등을 장악해 재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주
자회사에 칼호텔을 매각하고, 300
명이 넘는 제주도민의 일자리를 박
탈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진그룹이
누려온 혜택을 사실상의 대량해고
로 되갚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끝내 한진그룹이 도민들의
바람을 배신하고 호텔 매각을 강행
한다면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적으로 한진그룹 응징 투쟁이 벌어
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도영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에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리온(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번이치),
이로시마 7호, 일남1호,
병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리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